

10월 31일 K-SDGs 경제분야 집중포럼 속기

기조 강연자 정태인

- 지역 공동체 또는 개인 등 수준에서 경제의 역할에 대해 말해야 할 것
- 전 세계 두 개의 위기, 하나는 불평등 위기(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희망없는 시대)
- 두 번째는 생태 위기, 이대로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닥칠 것(그레타 툰베리)
-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답은 세 가지
- 첫째, 세금이나 벌금부과 등 경제적 유인 부과, ex. 탄소세, 전기료 인상
- 두 번째, 당사자들끼리 해결, ex. 탄소배출권시장
- 세 번째, 모두를 규정하는 규칙
- 77억의 인구가 전부 걸려있어 이 세가지 모두 어렵
- 문제, 정치적으로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, 기술이 해결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막연한 믿음(그래서 문제 회피),
- 해결위해서는 사회 운동 필요
-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 전환 필요
-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전면적이고 대규모의 녹색 투자(인프라 투자, 기술투자) 하고 이에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함(녹색혁신)
- 현재 대한민국은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좋은 삶인가라는 것을 토론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
- 기술은 있지만 정착이 부족한 우리나라
- 인프라 전환은 성장률,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짐
- 지금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 필요

질문자1

- 생태경제로의 전환이란?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담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?

기조 강연자 정태인

- 생태경제로의 전환은 Great Transformation, 인프라, 사고, 법, 사회적 제도, 기본적인 사람들의 삶이 다 변화 (산업구조를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며 이때 젊은 사람들의 변화와 요구가 중요)
- 실질적인 의지가 중요 (국가 차원의 의지가 중요할 것, 생태기술 쪽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)

질문자2

- 더 이상의 성장보다는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말씀 인상적, 기본 소득제 적용 시 관련하여 저항이 적어지지 않을까?

기조 강연자 정태인

- 기본소득 좋지만 일정 이상이 넘어 간다면 기존의 복지 시스템과 충돌할 것(이 문제 해결 시 찬성)

KDI 김정욱

- K-SDGs 개괄 설명
-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겠냐가 고민이었음
-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을 강화,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억제
- 경제의 성과가 불평등하게 나뉘지지 않도록 추진
- 청년 부분에서의 고용 중요

- 한국적 상황 고려 시 일단 전체적으로 산업, 근로자의 안전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(차후 이주민이나 성별에 다양한 산업 지표가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로 고려 가능)
- 복지 서비스 혹은 교통서비스, ICT서비스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목표나 지표로 설정
-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의 기반을 위해서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해 고민
- 주거 복지, 대중교통의 접근성, 이용이 용이하도록 교통의 기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 선정
- 전략적인 ODA 사업들이 선정이 되고 추진될 필요 존재
- UN SDGs와의 정합성 문제, 한국적인 시각에서 얼마나 접목이 가능할까라는 문제는 꾸준했음
- 목표지표 위상에서의 비일관성 문제 있음(경제성장률을 지표로 설정, 이는 굉장히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큰 문제,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표들 중에 하나로 제시)
- 통계치 부족으로 필요로 하는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어렵(통계치 없는 지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, 목표치를 설정이 가능할까)
- 목표와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의견 필요
- 의료, 금융, ICT 등의 분야에서 담론화가 잘 되지 않고 정책수단이 설정이 안 되던 문제 있음(산업계 의견 필요)

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)

- 지정 패넬들 발표

한국노총 송명진)

- 우리나라에서의 체제의 전환(정의, 공정) 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
- 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함께 통합적으로 추구되지 않으면 불평등, 양극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
- 기존의 중소기업 - 대기업 구조 하에서 사회적 기술 혁신이 가능할 것인가
- 분절적인 구조 개선 필요
- 국제 수준의 노동권을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 중요
- 저탄소사회이행계획에 있어서 노동시장과의 연계 필요
- 기존의 활약 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에 대한 논의 필요

포스코 안윤기)

- 경제학은 수급에 의한 원리,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 구매에 있어서 수급이 일어날 것인가?
- 친환경적인 상품을 공급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해야 함(공급이 아니고 수급 위주여야 함)
- 현재로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환경, 사회적 관점의 상품은 소비가 안 되고 있어 문제인 것
- SDGs의 17개 목표 구체화 작업, 구체적인 지표 작업 필요
- 시장이 조성되면 지속 가능한 지 여부를 떠나 산업계는 들어갈 것, 시장창출정책 필요
- 친환경적인 정책, 대표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정부 재정에 이득이 되지 않고 이때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

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)

-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나 부족한 사회 서비스, 안전망 회복의 측면에서 역할
- 내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SDGs 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
- 성장의 관점이나 경제의 관점보다는 보편적 복지 확대나 공동체의 자유와 자유를 확대. 그리고 참여를 통한 목표와 지표의 설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과정이 제대로 설계되기를 바램
- 공공의 인정을 받는 지표 설정 필요
-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가치 혹은 경제적가치 총량이 어느정도인지 측정 필요

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철희)

- 안윤기 위원님은 경제는 경제로 봐야 한다. 안인숙 실장님은 경제는 경제로 풀 수 없다, 는 재미있는 논의 진행 중

유엔글로벌콤팩트 이은경)

- 산업계의 SDGs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지만 자사의 내재화, 혹은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등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적인 이행 여부 등에서 현재 취약
- 정부 주도의 정책화에는 한계 존재
- 세계무대에서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는 중, 즉 민간 요구 기준 올라가는 중
- 유럽의 스마트믹스라는 용어 등장, 민간이 주도로 하되 정부는 지원
- 혁신적인 목표 설정 필요
- G20 재무장관들은 기후리스크 발생 시 기업의 경영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공시를 하고 주주와 고객들에게 정보제공을 하라, 이런 강력한 요구 받는 중, 이 부분은 한국 기업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
- 따라서 실제로 액션이 되고 작동가능한 부분에서 담론의 방향이나 지표 설정을 고민하고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

KT 이종일)

- SDGs 이행을 위해서 특정 프로젝트 몇 개를 운영
- 큰 정책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(감염병 확산 방지 사업)
- 사업 진행하며 KT 내부 변화 야기(다른 기업계, 다른 산업계에 좀 벤치마크가 되어서 확산 소망)
-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(SDGs는 그 중 일부)
- SDGs에서는 산업계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
- 특히 SDGs가 강조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, 기업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 고려 필요한 환경 조성 중
- 기업에서 SDGs를 이행 할 수 있는 부서는 사회 공헌팀 CSR팀, 지속가능 경영팀 정도
- SDGs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관련 활동들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
- 아직까지 대기업 활동은 '개선' 적인 개념 강함
- 기존 활동을 얼마큼 기업내부에서 변화시키는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
- 대기업 중심의 사회공헌, 사회 혁신적인 활동들이 중견중소기업은 진입 어려움(제약 있음)
- 이에 사례 발굴이 필요, 기업 내부 노력과 함께 정부 지원 필요
- 기업 활동들은 글로벌로 갔을 때 진출할 수 있는 사례 다수, 사례, 보상체계 등 소개 필요
- 기업이 공익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활동의 임팩트 정도, 측정이 어려움
- 측정되어 안내된다면 기업의 초기 변화 용이할 것
- 기업 내부의 내재화 위해서 기업 내부 노력 필요(거버넌스 측면)
- 여러 활발한 활동하는 이니셔티브가 SDGs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안내 필요할 것
- 제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, 섹터별 가이드라인 제공 시 이행 용이
- 사례 확산 등이 중요

플로어1

- 11-1, 주거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지표화해야 할 듯(생활밀착형 지표 필요)

플로어2

- 기업의 역할이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

- 세계적인 시장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소비 시장을 먼저 발견해내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
- 글로벌 시각에서 제대로 된 정보와 가이드라인 필요(정부역할)

플로어3

- UN이 설정한 기본 목표에 대해서 유지를 하면서 우리 환경과 미래를 위한 필요로 하는 지수 또는 세부목표가 추가로 표기가 되야할 듯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입장들에 대해 합의가 필요
- 주로 SDGs 논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섹터 부분인지 궁금

유엔글로벌콤팩트 이은경)

- 한국에서는 260개 정도의 기업 및 기관들 참여, 대기업 30% 공기업 및 공공기관 30%~40% 나머지 중소기업 학계 NGO, 지자체
- 섹터의 경우는 제조업 다수
- 금융분야에서 투자 흐름 변화 중, ESGs라는 거버넌스를 보고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 증가
- 변화의 양상. 투자를 빼거나 넣어서 기업의 어떤 정책과 전략을 바꾸는 방향
- 이런 추세는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은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에 대한 고찰 필요

포스코 안윤기)

- 지금 나오는 논의들은 과거와 동일,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앞서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던 기업 거버넌스 형성 불가
- 현실적으로 기업의 행동위해서는 수익이 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함
- CSR, CSV 등 개념정리와 함께 담론을 만들고 시장을 형성해서 전통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함